

## 전남



201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장을 찾은 한 주부가 홍채검진을 받고 있다. 홍채검진은 160여년 전부터 독일·헝가리 등 유럽에서 전통의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장흥 '통합의학 박람회' 성공리 페막

## 42만명 참관...‘건강축제’ 즐겼다

22개 의료기관 등 참여...환자 중심 의학 자리매김

전남도가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뿌리내리기 위해 연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는 “지난 24~30일 7일간 장흥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한 통합의학 박람회에 42만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중 22만여 명이 검진체험과 자연체험을 즐겼다.

‘자연과 인간을 잇는 건강 통합의학’이라 구호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와 달리 양방·한방·대체 요법의 통합의학적 진료관을 구성하고, 관람객 편의와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행사를 100% 건강검진 체험과 자연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통합적 진료체험을 위해 서양의학·한의학·보완 대체의학을 이해하는

고 상담하며, 검진·체험을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통증관·신경관·피부관·건강 검진관을 구성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22개 의료기관과 대학 등 참여기관에서 종합 건강진단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누구나 참여해 자연을 함께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전남 진 국화축제와 약용작물 베섯전시관, 자연체험관, 어린이 청소년 연극, 학술심포지엄 등 풍성한 볼거리와 행사로 준비해 대성황을 이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승마를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활승마 체육체험’과 어린이들이 함께 신나게 타고 즐기는 마차 운행은 연일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 보성 씨감자 보급종 1000t 생산

내년부터...40억 투자 양액재배 시설 등 구축

보성군이 씨감자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씨감자 보급종 1000t를 생산한다.

군은 농립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 2년간 40억을 투자해 ▲조직배양 첨단시설 ▲양액재배 시설

▲노지단지 60ha ▲저장시설 3개소 (620㎡) 등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한 후, 지난해 810t의 씨감자 보급종을 생산했다.

군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부족한 씨감자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종서대 절감, 고품질 씨감자 사용으로 감자 재배농가의 수확량이

10~30% 증대되는 등 씨감자 생산농가는 물론 감자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2년간 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씨감자 생산사업을 확대, 안정화시켜 내년부터는 1000t의 씨감자 보급종을 확대 생산할 계획이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기상이변이 없으면 계획량 (900t) 이상의 고품질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보성군이 전국 최고의 씨감자 생산 주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 글로벌 불황 다 함께 극복하자

## 광양제철, 고객社 애로 청취

임직원, 한진철관·동아스틸 방문 혁신기법 전파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이 글로벌 불황을 타개하고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밟벗고 나섰다.

백승관 소장은 하이밀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26일과 29일 하이밀 제품 주고객사인 한진철관과 동아스틸을 방문해 광양제철소의 혁신 활동을 전파하고, 고객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아스틸은 원형 및 각형 파이프를 제조하는 강관업체이며, 한진철관은 천안에 공장을 두고 원형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2곳

모두 광양제철소 하이밀로부터 열연제품을 구매하는 우량 고객사다.

백 소장은 동아스틸을 방문해 공장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30여 명의 하이밀부 혁신 전도사들은 동아스틸의 주요 설비에 광양제철소의 성공혁신 기법인 3S(정리·정돈·정소)와 설비 VM(Visual Management)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관련 노하우를 전파했다.

이에 앞서 한진철관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진철관의 공구 자체설에 적용 가능한 혁신 기법을 전파했다.

동아스틸 김준형 대표이사는 “광양제철소의 혁신기법을 적용하면 작업이 편리해지고 생산 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승관 소장은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지금보다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한편 백승관 소장은 다음달 12일에도 품질기술부 직원들과 함께 아산 현대차 공장과 화성 기아차 공장을 방문해 품질관련 불만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진도 강강술래 경연대회

## 내달 3일 일반부·학생부

진도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 경연대회가 11월 3일 열린다.

강강술래를 세계화해 한국의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진도 강강술래의 원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강강술래 학습단체 및 학생팀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경연한다.

이번 대회는 해남, 대전, 부산, 경기, 서울 등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진도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동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조충훈 순천시장, 세이셸 공화국 대통령 예방

## 정원박람회 적극 협조 약속 받아

조충훈 순천시장이 지난 29일 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 제임스 알리스 미셀 대통령을 공식 예방했다. (사진)

조 시장은 “내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인도양 국가의 정원박람회 참여를 위해 세이셸 국가의 협조를 바란다”며 “내년 4월 20일 개막식 행사에 제임스 알리스 미셀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임스 알리스 미셀 대통령은 “21세기에는 생태와 문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원박람회 인도양 7개국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순천시는 세이셸 공화국 정부와 문화교류 증진과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를, 세이셸공화국 수도인 비토리아시와 국제교류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세이셸 공화국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실내정원을 조성 중에 있다.

이번 조 시장 공식방문은 세이셸 공화국 제임스 알리스 미셀 대통령 일행이 지난 5월 순천시를 방문해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른 나라 또는 타 지역의 브랜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원박람회 참여와 생태프로그램의 교류를 약속하고 공식 초청한 바 있다.

한편 아프리카 인도양 서부마다가 스카르 북동쪽에 있는 섬나라인 세이셸 공화국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여수 음식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 내달 1일부터 5만8279세대 대상

여수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11월 1일부터 140개 공동주택 5만8279세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 쓰레기를 담아 봉투째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매월 1000원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음식물 전용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각 가정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모두

4종으로 1매당 가격은 1ℓ·20ℓ·2ℓ·40ℓ·3ℓ·50원·5ℓ·80원이며,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수동 현대아파트(1102세대)·학동 신동아·파밀리에(1830세대) 등 공동주택 2개 단지, 29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종량제는 음식 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돈 벌게 하는 폐스티로폼

신안군, 감용기 시설 처리 건축자재 활용

해양환경 훠손과 오염을 유발시키는 폐스티로폼이 수입 창출 원으로 변모했다.

신안군은 최근 (사)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와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공동 주관의 폐스티로폼 재활용 평가에서 우수 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해양환경 훠손과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 수입을

창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에서 사용했거나 조류를 타고 밀려온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감용기 시설을 이용해 처리, 건축자재·액자 등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감용기 시설은 1대당 하루 800kg, 연간 10여 t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 한권으로 해외로 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쪽!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용점 포켓북시리즈.

대한민국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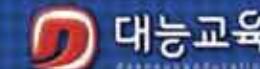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표시

알파벳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daeneungedu.com